

여름철 산림재해 예방·대응 총력

전북도,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 15개소 운영·취약지역 점검·보수 등 진행

전북도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 및 복구 대응을 위한 산사태 대책 상황실 15개소를 도·시·군 산림부서에서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책상황실은 기상 및 산사태위험경보 단계별(관심·주의·경계·심각) 상황에 맞게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한다.

도는 일선 시·군 산림부서와 유기적 협조 체계로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산사태 현장 예방 단원 32명(8개 시·군)을 배치한다.

이들은 취약지역(1,970개소)을 중심으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응급보수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산사태 예측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을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등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다.

지난해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

에도 속도를 낸다.

전북도는 우기(6월) 전까지 2020년 산림피해지(533개소)에 대한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가 이뤄지도록 현장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허전 도 환경녹지국장은 "여름철 산사태 예방·대응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민관 산불진화 합동훈련 실시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항송)는 완주군 용진읍에 소재한 봉서사에서 스님들과 함께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가상의 산불상황을 부여해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을 활용한 민관 합동훈련으로 이뤄졌으며, 훈련 종료 후 목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이격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봉서사 연수 주지스님은 "진목대사와 해인사 대장경에 얽힌 설화가 있다. 해인사 대장경각 옆에서 불이나 대장경이 위험해지자 진목대사가 솔잎에 물을 적서 불길이 번지는 곳에 몇 번 뿌리자 갑자기 폭우가 내려 불길을 잡음으로써 대장경판의 위기를 구했다는 일화가 있다"면서 "진목대사가 수도한 봉서사에서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항송 익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목조 문화재를 보호하는 훈련을 하게 돼 뜻깊다"며 "유명 사찰과 산림은 항상 인접해 있음을 명심하시고 산림 내 연소행위를 철저히 금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5·18 묘역 찾아 유가족 위로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후 묘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산림청 국립등산학교, 등산·트레킹 입문자 위한 온라인 특강 개설

산림청 국립등산학교(교장 안중국)는 등산·트레킹 입문자를 위한 '온라인 등산·트레킹 특강'을 5월부터 9월 까지 총 5회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립등산학교 온라인 특강은 매일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열린다.

5월 '등산이 건강에 좋은 이유', 6월 '해의 등산문화와 예절', 7월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산악사고 생존경험담과 생존 요령)', 8월 '술과 나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9월 '산악영화

명장면 진짜? 가짜?'로 구성돼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6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첫 번째 특강은 '등산이 건강에 좋은 이유'라는 주제로, 등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등산방법에 대해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강의는 지난 1993년 국내 여성 최초로 하지현목, 김순주씨와 함께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최오순씨가 강사로 나선다.

이번 강연은 등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사전접수 페이지(forms.gle/FwRdPS2xD5kpKymG8)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전접수기간은 5월 23일까지이다. 사전 접수를 못하더라도 교육 당일 유튜브(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채널)를 접속하면 시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교육비는 없다.

교육사전접수자에게는 온라인 특강 알람 문자 발송, 우수교육생에게는 5만원 상당의 등산용품이 제공된다.

또, 사전접수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등산학교 교육운영실(033-632-6653)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안중국 국립등산학교교장은 "등산·트레킹 입문자들이 이번 특강을 통해 등산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등산지식과 올바른 등산법을 익혀 건강한 등산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등산학교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등산교육을 제공하고, 안전한 등산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림청에서 지난 2017년 건립, 2018년 12월 정식 개교했다. /유호상 기자

대아수목원, 식물종 확보·관리 최선

2012년 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매년 종자저장소에 종자 기탁

연평균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전북도 대표 생태관광지인 대아수목원 이 식물종 보전을 위한 활동에 힘을 쏟는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한반도 식물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으며 토종 야생식물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전북도 대아수목원은 단순 관람뿐 아니라, 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써 종보전 식물연구 등 생태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아수목원은 지난 2012년 7월에 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식물 자원 보전을 위해 매년

종자저장소(시드뱅크)에 종자를 기탁하고 있다.(2020년 29종, 2021년 91종 기탁)

그 외에도 종자와 표본을 포함한 식물정보 교류, 산림식물자원 공동 연구·인력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다.

또한, 산림문화 체험교실과 숲해설 등을 운영해 도민에게 질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용은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대아수목원은 식물종의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양한 식물과 교감할 수 있는 자연학습과 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출산가정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전국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전북도는 160% 이하까지 지원

전북도가 출산 가정의 산후 관리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출산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고 있다.

관련 법령인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지원되며, 전북도는 추가적으로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지원된다.

기존에는 전국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는 140% 이하까지 추가 지원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 가정 또는 외국인등록 출산 가정으로,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 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된 출산 가정에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국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욕구가 증가하는 만큼 많은 출산 가정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 조사료 잔류농약 검사 추진

전북도가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자가소비와 유통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동·하계 사료작물 및 볏짚 등 조사료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추진한다.

유해사료 유통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조사료 검사물량은 총 82점이다. 동·하계 사료작물 58점, 볏짚 24점이며, 수확기간(동계 : 5월~6월, 하

계 : 9월~11월) 동안에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상시 관리 대상인 비렌트린 등 44가지(잔류 농약 42성분,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오클라톡신))이다.

전북도는 허용기준 이상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료작물은 가축 급여를 금지·폐기하는 등 안전한 조사료가 생산·유통되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